

에티오피아의 코로나19 경제위기와 실업

Belayneh Kassa Anagaw (에티오피아 바히르다르대학교 경제학과 부교수)

■ 서론

2019년 말 중국 우한에서 최초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보고된 이후 코로나19는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20년 1월 30일에 코로나19를 국제적인 공중 보건 위기로 발표했고, 2020년 3월 11일에는 팬데믹을 선언했다. 지금도 매일 전 세계에서 더 많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보고된다. 긴밀하게 연결·통합된 세상에서 코로나 19의 영향은 단순히 치명률에 그치지 않으며, 팬데믹으로 인해 세계 경제는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심각한 충격을 겪고 있다.

팬데믹은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바에 의하면 특히 경제적 지위가 낮은 집단일수록 팬데믹에 더 취약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미 취약했던 사회계층에 부정적인 충격이 가해짐으로써 경제 및 사회적 복지 차원의 어려움이 가중됨을 의미한다. 특히 에티오피아와 같이 인구의 상당수가 빈곤선 주위에 집중되어 있는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더욱더 그렇다.

에티오피아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2021년 4월 6일 기준 확진 건수는 총 21만 9,381건이며 사망 및 회복 건수는 각각 3,025명과 16만 3,969명으로 보고됐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에티오피아의 주요 경제부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 영향의 정도는 부문별로 차이가 있다. 특히 서비스부문이 막대한 영향을 받고 있으며 제조업부문이 그 뒤를 따른다. 섬유 및 피혁 제조업, 수출 중심 농업, 운송서비스업, 숙박 및 식료품 서비

스업도 타격이 큰 부문에 속한다. 수출 중심 농업과 쉽게 부패하는 농산물(채소, 화훼 등) 및 유제품 생산의 경우, 수입 비료 및 농약의 공급, 종자 운송 및 유통이 차질을 빚고 있어 더욱 타격이 크다. 팬데믹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기업활동이 전면 또는 일부 중단되고 이로 인해 투자가 감소하면서 건설업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지역시장, 지역 내 및 지역 간 상거래와 상품 교환, 노점상, 관광 및 유흥업, 연예산업, 대외무역 및 운송업 등의 국가 경제활동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

에티오피아는 팬데믹 이전에도 심각한 경제 충격을 겪고 있었으며 이는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사회적 불안으로 갈등이 촉발되면서 인명 및 재산피해와 함께 수백만 명의 내부 난민이 발생했고, 사막 메뚜기의 대규모 습격으로 인해 100만여 명이 피해를 입었으며 농지 부족과 심각한 식량 불안을 겪고 있었다. 한편 콜레라, 홍역, 황열의 확산으로 인해 이미 2018년에 일상적 보건서비스 제공 역량이 필요 수준의 55%에 그치는 상태였다. 이러한 모든 충격은 빈곤, 실업 및 기타 빈곤층 보호 측면에서 에티오피아의 상황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세계은행(World Bank) 원자료(2020년 4월부터 매월 가계 및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된 고빈도 전화조사)와, 에티오피아 중앙통계청(Central Statistics Agency : CSA) 원자료, 에티오피아 계획개발위원회(Ethiopian Planning and Development Commission)의 거시경제 자료를 이용해 에티오피아의 경제 상황을 분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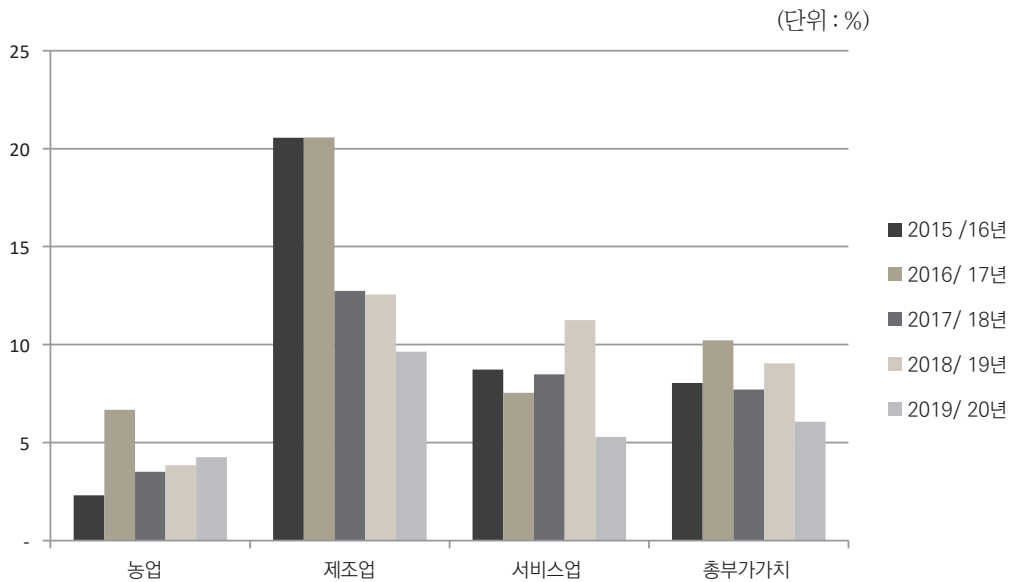
■ 에티오피아 경제 개요

에티오피아는 에리트레아, 지부티, 소말리아, 남수단, 수단과 국경을 접한 내륙국가로, 인구는 약 1억 1천만 명이며 아프리카에서 나이지리아 다음으로 인구가 많지만, 국민 1인당 소득은 850달러에 불과한 최빈국 중 하나이다. 에티오피아 경제는 팬데믹 이전에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코로나19 확산 이후로는 경제 성장이 위축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그림 1]에서 알 수 있듯이, 농업을 제외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2019/20년 성장률이 전년대비 하락했는데 이는 팬데믹과 관련이 있다. 농업의 2019/20년 성장률은 전년대비 약간 높아졌다.

2019/20년의 경우 서비스업이 에티오피아의 GDP에서 가장 큰 비중(39%)을 차지했고, 농업(36.1%)과 제조업(28.1%)이 그 뒤를 이었다. 코로나19가 각 경제부문에 미친 영향은 부문별로 차이가 있다. 2018/19년 서비스부문 GDP에서는 도소매업이 35.9%를 차지했고, 음식·숙박업(6.5%), 운송통신업(14%), 부동산 임대업 및 기업활동(10.7%), 공공행정 및 국방(11.2%), 금융 중개, 교육, 보건 및 사회사업, 지역사회 및 개인서비스 등의 기타 업종(21.7%)이 나머지를 차지했다. 제조부문, 특히 노동집약적 제조업은 팬데믹으로 인해 큰 타격을 받았다.¹⁾

[그림 1] 주요 산업별 불변가격 GDP 성장률



자료: Ethiopian Planning and Development Commission(2021) 자료를 기초로 필자 정리.

1) Ethiopian Planning and Development Commission(2021), *The Second Growth and Transformation Plan 2019/20 Fiscal Year Macroeconomic Performance Report*.

■ 노동시장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농업 부문과 비공식 부문은 전체 노동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ILO(2020)²⁾에 의하면, 많은 아프리카 국가의 노동력 중 약 90%가 비공식 고용에 속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비공식 부문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55%에 이른다.

다른 개발도상국과 마찬가지로 에티오피아는 다른 생산요소에 비해 노동력이 매우 풍부한 국가이다. 전체 인구 대비 노동력 증가율이 높고 인구분포에서 청년 인구가 지배적인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노동 공급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노동력에서 퇴장하는 고령자보다 노동력에 신규 진입하는 15세 미만 인구가 더 많다.

에티오피아 중앙통계청의 추산에 따르면, 에티오피아의 경제활동인구(15~64세)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50%에 이른다. 이는 2019/20년 기준으로 5,450만 명이 경제활동인구에 속한다는 뜻이다. 이들 중 대다수는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세계은행에 의하면,³⁾ 2019/20년에는 전체 노동력의 약 79%(중앙통계청 추산에 의하면 4,300만 명 이상)가 취업자였다. 부문별 취업 비중을 살펴보면, 농업이 68%로 가장 크고, 서비스업이 22%, 제조업이 10%로 각각 뒤를 이었다.

노동시장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에티오피아에는 노동시장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들이 충분히 발달되어 있지 않다. 에티오피아의 노동시장 제도는 기본적인 규제틀로서는 한계가 있으며, 이러한 제도적 미비로 인해 노동자 보호와 일자리 안정 기능이 결여된 형식적 제도에 불과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에티오피아의 노동시장 제도에는 노동사회부(Ministry of Labour and Social Affairs)와 그 지역별 부서, 각급 영세·소기업개발국(Micro and Small Enterprise Development Agencies), 노동법원, 노동조합, 종업원회가 포함된다. 또한 에티오피아는 고용관계를 통해 고용 성과를 개선하려는 노력의 일환인 법들을 공포했다. 「노동법(Proclamation No. 377/2003)」, 「고용서비스 제공법

2) ILO(2020), "The Impact of COVID-19 on the Informal Economy in Africa and the Related Policy Responses", https://www.ilo.org/wcmsp5/groups/public/---africa/---ro-abidjan/documents/briefingnote/wcms_741864.pdf (검색일: 2021.4.5).

3) World Bank(2020a), "Employment to Population Ratio, 15+, Total(%) (modeled ILO estimate) - Ethiopia", <https://data.worldbank.org/> (검색일: 2021.4.5).

(Proclamation No. 632/2009)», 「장애인고용권법(Proclamation No. 568/2008)」이 그에 해당하며, 그 외에도 20여 개의 ILO 협약을 비준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장치와 보호는 대부분 공기업과 일부 민간부문에 한정되어 있다. 비공식 부문과 생계 농업에 종사하는 이들에 대한 보호는 전혀 없는데, 이들 집단은 부정적인 충격이 가해지는 시기에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

■ 코로나19와 고용

코로나19로 인해 인구 이동이 제한되고 음식점, 주점, 소매업체, 비공식 상거래 등이 휴업 하면서 가치사슬이 붕괴되고 이는 다시 여러 비공식 활동의 중단으로 이어졌다. 이와 같은 경제 충격은 도시의 비공식 및 공식 노동자 모두에게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그 정도에는 차이가 있다.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도시의 비공식 일자리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세계은행이 실시한 고빈도 전화조사⁴⁾에 의하면, 2020년 4월 1차 전화조사 응답자의 약 63%는 취업 중이었으며 도시와 비도시지역 사이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조사 기간 동안 에티오피아 정부는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이동과 기업활동을 제한했다. 비상사태 기간에 기업의 노동자 해고가 금지됐지만, 전화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는 고용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과 같이, 응답자의 63.4%는 전화조사 당시 취업자였으며 나머지 36.6%는 미취업자였다. 미취업자 중 약 26%는 팬데믹 이전에는 취업자였으며, 이 수치는 도시지역으로 한정하면 약 42%로 높아진다. 현재 미취업자 중 62.8%는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와 개별 가게의 미흡한 대응이 실직 원인이라고 응답했다.

1차 전화조사 결과를 보면 코로나19는 모든 부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소매업, 제조업, 개인서비스업 등에서 높은 실업률이 나타났다.⁵⁾

4) World Bank(2020b), “Ethiopia-COVID-19 High Frequency Phone Survey of Households”, <https://www.microdata.worldbank.org> (검색일: 2021.4.5).

5) 농업, 음식업, 운송업 등에서도 많은 실직이 발생했으나, 2020년 5월경 봉쇄 및 제한조치가 완화되면서 이 부분들의 영업을 부분 재개되어 고용 상황 역시 다소 회복되었다.

<표 1> 현재 및 코로나19 이전의 고용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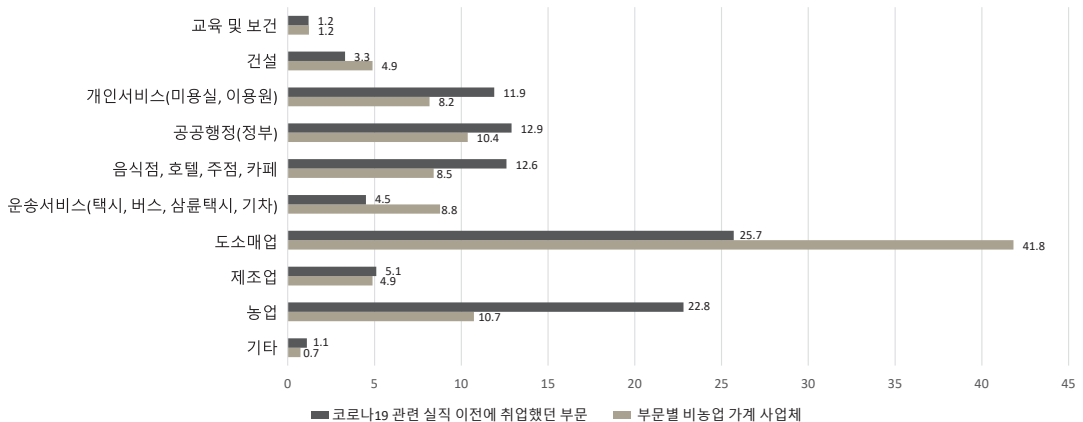
(단위 : %)

	2020년 4월 현재		
	비도시	도시	전체
현재 취업자	62.9	64.5	63.4
현재 미취업자	37.1	35.5	36.6
이전 취업자	18.6	42.3	26.0
이전 미취업자	81.4	57.7	74.0
코로나19 이후 실직 원인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61.2	64.3	62.8
계절적·임시적 일자리	27.4	11.2	19.2
한시적 휴직	9.0	13.7	11.4
기타	2.4	10.7	6.6

자료: World Bank(2020b), "Ethiopia-COVID-19 High Frequency Phone Survey of Households", <https://www.microdata.worldbank.org> (검색일: 2021.4.5).

[그림 2] 부문별 코로나19 관련 실직 및 부문별 비농업 가계 사업체 분포

(단위 : %)



주: 비농업 가계 사업체 중, 직접적인 농업활동은 아니지만 농업 관련 활동에 종사하는 응답자들이 있는데 (10.73%), 농업 관련 소매 거래, 수공업, 농지임대 및 시설 유지 등 제조업이나 서비스부문에 등록되지 않은 경제활동이 이에 해당한다.

자료: World Bank(2020b) 자료를 바탕으로 필자 정리.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첫 3개월 동안 농업과 도소매업에서의 실직 건수를 합치면 전체 실직 건수의 40%가 넘는다. 고용지위별로는 임시 노동자 가운데 실직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38%), 민간부문 임금노동자(20%)와 자영업자(11%)가 그 뒤를 이었다. 에티오피아 고용에서 자영업은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자영업자의 실직은 전체 개인 실직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전체 실직자 중 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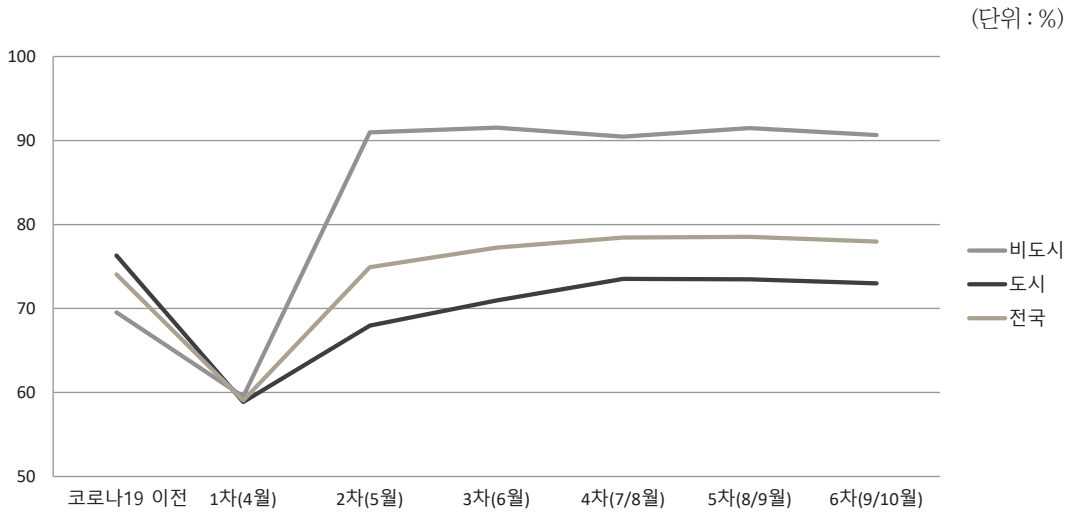
4월부터 10월까지 6회에 걸쳐 실시된 세계은행 전화조사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팬데믹 초기에는 응답자의 약 8%가 실직했다고 답했다. 에티오피아의 도시와 비도시지역의 실직 패턴은 상이한데, 도시지역에서 20%가 일자리를 잃은 반면 비도시지역에서는 3%에 머물렀다. 또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코로나19가 일자리에 가져온 충격은 남성(6%)보다 여성(13%)에게 더 큰 것으로 확인됐다. 도시지역 노동은 자영업과 임시직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도시지역 실직 중 대다수는 숙박·관광업, 건설업, 도소매업에서 발생했는데, 이 부문들이 팬데믹 발발 직후에 휴업했기 때문이다.

2020년 5월, 에티오피아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시행한 제한 조치들을 일부 완화했고 이에 따라 음식업과 운송업 등의 영업을 부분적으로 재개되었다. 결과적으로 5월 이후에는 고용이 강한 회복세를 보였고 10월까지 안정세가 유지되었다. 강한 고용 회복세는 팬데믹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은, 농업이 주종을 이루는 비도시지역에서 나타났다(약 95%의 농업 부문이 팬데믹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운영됨). 농업 부문에서 고용이 회복된 또 다른 이유는, 봉쇄조치 이후 도시에서 비도시로 대규모 인구 이동이 발생하면서 비도시지역의 신규 유입 인구 상당수가 농업 부문의 가족노동에 종사했기 때문이다. 다른 부문에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 일부가 농업 부문으로 진입해 정착한다는 점에서 농업은 대체 업종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3]은 도시와 비도시지역의 취업 동향을 보여주는데, 5월 이후 비도시지역의 고용은 크게 증가했지만 도시지역에서는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할 때 여전히 낮은 고용 수준을 보이고 있다.

반면, 비도시지역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한 실직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사라지고 있다. [그림 4]는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의 다양한 실직 이유를 보여준다. 4월부터 8월까지는 코로나19가 도시와 비도시지역 모두에서 실직 원인의 큰 비중을 차지했으나, 비도시지역에서는 8월 이후 코로나19의 영향이 사라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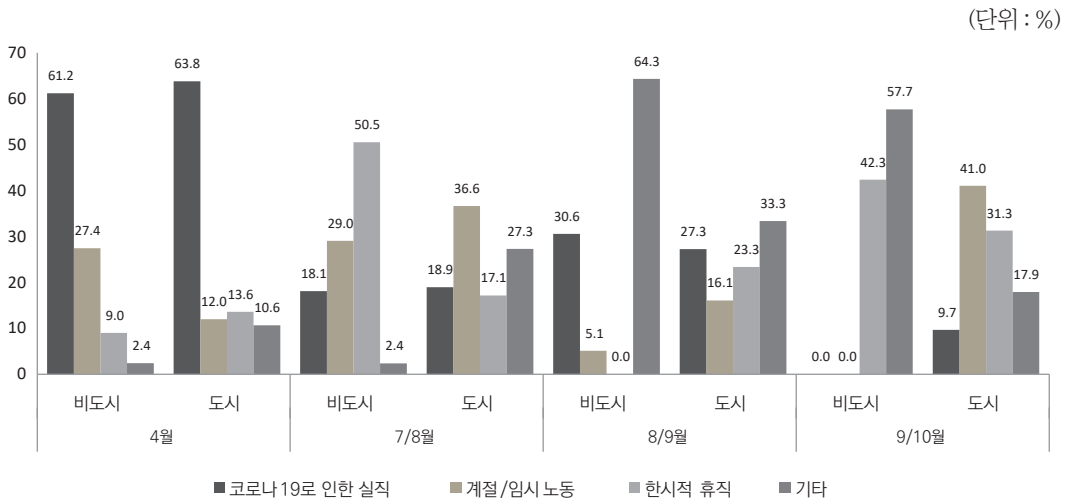
코로나19 관련 실직은 응답자의 가계 구성원에서도 많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그림 5]에서 알 수 있듯이, 응답자 가족 중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실직한 비율은 2020년 5월에는

[그림 3] 전화조사 직전 주에 취업 중이었던 응답자 비중



자료 : World Bank(2020b) 자료를 바탕으로 필자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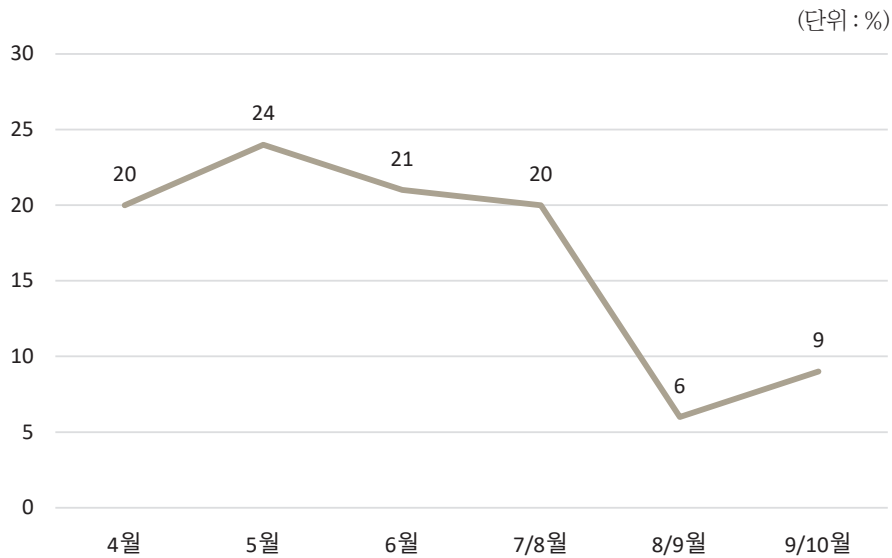
[그림 4] 미취업자의 실직 이유



자료 : World Bank(2020b) 자료를 바탕으로 필자 정리.

24%였지만 7/8월에는 6%로 낮아졌으며, 마지막 조사인 9/10월에는 9%를 기록했다. 에티오피아의 노동시장은 코로나19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사회 불안의 영

[그림 5] 전화조사 응답자 중 코로나19로 인해 실직한 가계 구성원이 있는 비율



자료: World Bank(2020b) 자료를 바탕으로 필자 정리.

향도 크게 받는다.

코로나19의 영향은 고용 감소에 그치지 않고 기존의 빈곤 및 취약계층에 또 다른 부담을 가져다 주었다. 팬데믹으로 인해 상당히 많은 가구의 소득이 크게 감소했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가구는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가구도 과반수를 차지한다.

25세 미만의 노동력 집단에 대한 2020년 6월 Young Lives(2020)의 조사에 의하면,⁶⁾ 응답자 중 27%는 최소 1명의 가계 구성원이 팬데믹으로 인해 실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관련 자료에 의하면 비공식 노동자가 공식 노동자보다 실직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비공식적 특성이 강한 부문일수록 팬데믹이 고용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다. 국제개발컨설팅사인 옥스퍼드 정책관리(Oxford Policy Management)의 조사 역시 빈곤·취약층의 60% 이상에서 노동시간이 감소했다는 결과를 통해 위와 같은 사실

6) Young Lives(2020), *Listening to Young Lives at Work in Ethiopia : First Call*, Oxford: Young Lives.

<표 2> 각 가구의 팬데믹 대응 전략

(단위 : %)

	4월	5월	6월	7/8월	8/9월	9/10월
자산 매각(농업 및 비농업)	4.0	1.1	2.0	1.1	1.6	0.7
추가 소득을 얻기 위한 활동	2.8	2.8	3.5	2.8	5.6	3.0
친구나 가족의 지원	3.2	5.3	4.3	6.5	5.8	5.6
친구나 가족에게 자금을 빌림	3.8	5.8	3.9	7.4	11.1	5.9
식품 소비 절감	12.8	19.5	22.7	16.2	13.0	11.4
식품 외 소비 절감	10.0	16.3	17.8	11.9	9.1	12.1
저축액 사용	19.5	21.4	25.6	19.3	20.6	23.0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음	55.2	50.3	46.2	52.9	45.4	50.8
기타	4.6	3.5	5.5	6.2	8.4	6.0

자료 : World Bank(2020b), “Ethiopia-COVID-19 High Frequency Phone Survey of Households”, <https://www.microdata.worldbank.org> (검색일 : 2021.4.5).

을 확인하고 있다(Harris et al, 2020).⁷⁾ 반면, 공식적 성격이 강한 산업공단 노동자의 고용에는 팬데믹의 영향이 크지 않았다. Demeke et al.(2020)⁸⁾에 의하면, 하와사(Hawasa)공단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2020년 4월까지의 노동계약 해지건 중 팬데믹으로 인한 해지는 전체 노동자의 2%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여전히 근무하고 있거나(56%) 유급휴직(24%), 무급휴직(7%), 또는 자발적으로 사직한 경우(11%)였다. 여러 조사의 통계 수치가 팬데믹이 고용에 미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보여주는데, 자영업자나 계절 노동자와 같이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 팬데믹이 더 큰 위협이 된다는 점에서 일치된 결과를 보여준다. 그러나 에티오피아의 경우 노동력의 상당 부분(68%)이 가족노동에 기초한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들은 팬데믹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학교가 휴업하면서 농업 부문은 가족노동력을 추가로

7) Harris, D., A. Teklu, G. Medhin, I. Mitiku, B. Tadesse, and M. Demissie(2020), *The Effect of COVID-19 and Government Response Measures on Poor and Vulnerable Groups in Urban Areas in Ethiopia. Research Report : Results from the First Round of a Mixed Method Panel Study in Urban Areas in 10 Cities in Ethiopia*, Oxford : Oxford Policy Management.

8) Demeke, E., M. Hardy, G. Kagy, C. J. Meyer, and M. Witte(2020), “The Impact of COVID-19 on the Lives of Women in the Garment Industry : Evidence from Ethiopia”, <https://www.sciencedirect.com/> (검색일 : 2021.4.10).

확보할 수 있었고, 이로써 이동 제한에 따른 노동 공급 부족이 농업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할 수 있었다.

■ 전반적 평가

2020년 3월 13일 에티오피아에서 코로나19 최초 확진자가 보고된 이후, 2020년 8월까지 확진자 수가 서서히 증가했고 8월 이후에는 1일 확진건이 더욱 늘어나기 시작했다. 현재는 1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에티오피아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위협을 가져올 것이다. 게다가 월레가(Wollega), 베니산굴 구마즈(Benishangul Gumuz), 티그레이(Tigray) 등, 에티오피아 여러 지역에서의 무력 충돌과 같은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내부 난민이 대거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불안은 국민의 관심을 팬데믹의 심각성보다 정치 상황으로 돌림으로써 코로나19 확산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지금까지 팬데믹은 다양한 부문의 종사자에게 영향을 미쳤다. 특히 건설업, 숙박·유흥업, 도소매업, 교육 및 보건업, 제조업은 팬데믹의 타격을 가장 크게 받은 부문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일부 부문의 고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에티오피아 정부가 일부 부문에서의 해고를 막기 위해 면세기간 도입, 직접적인 자금 이전 등의 재정 부양책을 실시하고는 있지만, 여러 조사에 따르면 팬데믹 이후로 해고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에티오피아 노동제도의 기능을 강화하는 데 좀 더 주력할 필요가 있다. **KLI**

■ 부 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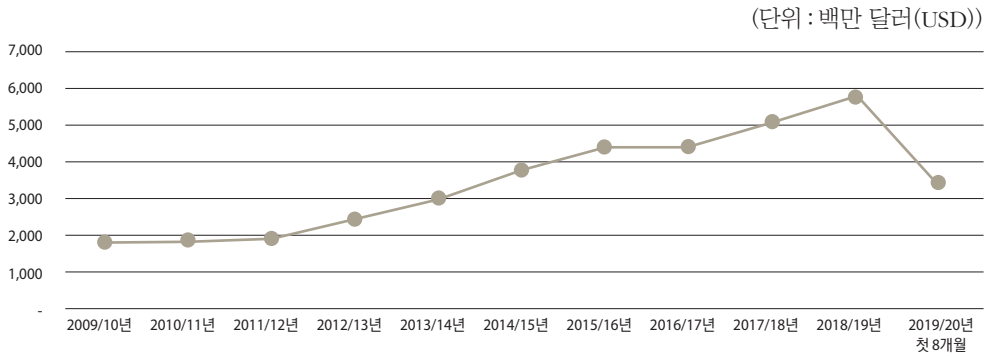
<부표 1> 업종별 불변가격 GDP 성장률(기준연도:에티오피아 회계연도 2015/16)

(단위 : %)

	2015/16	2016/17	2017/18	2018/19(A)	2019/20(B)	성장률 차이(B-A)
농업·수렵 및 임업	2.3	6.7	3.5	3.8	4.3	0.5
작물	3.4	8.2	4.7	3.0	4.7	1.7
축산 및 수렵	1.5	4.2	0.6	6.0	3.3	-2.7
임업	2.2	3.6	3.3	3.8	3.9	0.1
수산업	0.1	0.5	11.3	2.3	2.0	-0.3
광업 및 채석업	3.3	29.8	20.8	21.9	91.4	69.5
제조업	18.4	24.7	6.8	7.7	7.5	-0.2
중·대규모 제조업	22.9	19.2	8.4	10.0	9.8	-0.2
영세 및 소규모 제조업	2.5	36.9	3.7	3.0	2.6	-0.4
전기 및 수도업	15.0	12.4	9.6	4.0	7.2	3.2
건설업	25.0	20.7	15.7	15.0	9.9	-5.1
도소매업	8.2	6.5	11.4	11.7	6.4	-5.3
음식·숙박업	15.6	0.1	6.1	9.0	2.2	-6.8
운송·통신업	13.7	15.1	6.4	21.0	1.1	-19.9
금융중개업	9.6	18.3	10.7	13.6	10.2	-3.4
부동산·임대업 및 사업활동	3.7	4.4	6.2	7.5	9.5	2
공공행정 및 국방	7.4	13.2	8.9	9.0	2.3	-6.7
교육업	8.8	3.2	3.6	3.5	1.8	-1.7
보건 및 사회사업	10.8	7.0	8.3	14.3	12.9	-1.4
기타 지역사회·사회 및 개인서비스	3.0	4.5	5.1	6.3	2.5	-3.8
취업자가 있는 민간 가계	4.3	3.5	3.9	2.5	2.3	-0.2
계	8.0	10.3	7.8	9.0	6.2	-2.8

자료 : Ethiopian Planning and Development Commission(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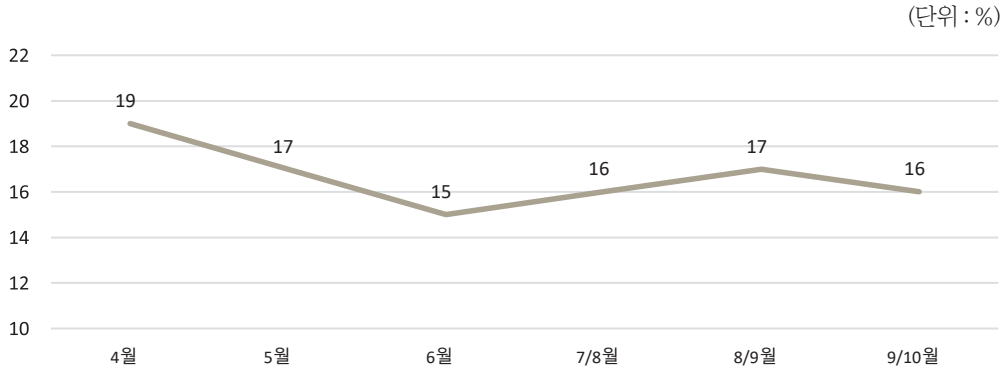
[부도 1] 연도별 해외송금액 변화 추이(2009/10~2019/20년)



주 : 에티오피아 국민이 이주한 국가들에서 발발한 코로나19는 해당 국가의 노동시장에도 영향을 미쳐 이주민이 본국으로 보내는 송금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된다. [부도 1]에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첫 8개월 동안 해외송금액이 급격하게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자료 : Ethiopian Planning and Development Commission(2021).

[부도 2] 전화조사 응답자 중 최근 4주 동안 취업상태인 가계구성원이 있는 응답자 비율



자료 : World Bank(2020b) 자료를 바탕으로 필자 정리.

참고문헌

- Demeke, E., M. Hardy, G. Kagy, C. J. Meyer, and M. Witte(2020), “The Impact of COVID-19 on the Lives of Women in the Garment Industry : Evidence from Ethiopia”, <https://www.sciencedirect.com/> (검색일 : 2021.4.10).
- Ethiopian Planning and Development Commission(2021), *The Second Growth and Transformation Plan 2019/20 Fiscal Year Macroeconomic Performance Report*.
- Harris, D., A. Teklu, G. Medhin, I. Mitiku, B. Tadesse, and M. Demissie(2020), *The Effect of COVID-19 and Government Response Measures on Poor and Vulnerable Groups in Urban Areas in Ethiopia. Research Report : Results from the First Round of a Mixed Method Panel Study in Urban Areas in 10 Cities in Ethiopia*, Oxford : Oxford Policy Management.
- ILO(2020), “The Impact of COVID-19 on the Informal Economy in Africa and the Related Policy Responses”, https://www.ilo.org/wcmsp5/groups/public/---africa/---ro-abidjan/documents/briefingnote/wcms_741864.pdf (검색일 : 2021.4.5).
- World Bank(2020a), “Employment to Population Ratio, 15+, Total%(modeled ILO estimate) – Ethiopia”, <https://data.worldbank.org/> (검색일 : 2021.4.5).
- _____(2020b), “Ethiopia-COVID-19 High Frequency Phone Survey of Households”, <https://www.microdata.worldbank.org> (검색일 : 2021.4.5).
- Young Lives(2020), *Listening to Young Lives at Work in Ethiopia : First Call*, Oxford : Young Lives.